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제37회 호렘산 기도회

“
그날에
큰 능력을
보리라
”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 14:31]

광림교회 | 광림남교회 | 광림북교회 | 동탄광림교회 | www.klmc.church

제37회 호렘산기도회

6월 2일(월) ~ 7월 11일(금) 새벽 4시 45분, 본당과 지교회에서 진행

제37회 호렘산기도회가 ‘그 날에 큰 능력을 보리라’(출 14:31)는 주제로 오는 6월 2일(월)부터 7월 11일(금)까지 40일 동안 열린다. 새벽 4시 45분부터 광림교회 본당과 광림남교회, 광림북교회, 동탄광림교회 등 지교회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또, 러시아, 일본, 베트남 등 세계 곳곳에 세워진 광림교회 미션센터에서도 본당과 동일한 일정으로 함께 진행되며,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광림교회 성도들이 영상을 통해 동참한다.

1989년에 시작된 호렘산기도회는 올해로 37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해마다 6월 첫 주 월요일에 시작되어 7월까지 40일 동안 이어진다. 호렘산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은 치유와 회복, 인격의 변화 등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자리 잡아왔으며, 특별히 한국교회의 ‘40일 특별새벽기도회’를 정착시키는데 효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렘산기도회를 완주하기 위해서 광림의 성도들은 이 기간 동안 삶의 패턴을 호렘산기도회 중심으로 바꾸고,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 영적인 태도로 행동하고,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광림교회 성도들에게 호렘산기도회 40일은 삶의 중심이고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며, 기도의 축제 기간으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3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호렘에 오르며 승리의 삶을 사는 광림의 성도들이 많다. “호렘산기도회는 저에게 영적 보약입니다. 직장이 멀어서 항상 빠듯한 일정이고 잠이 많지만, 호렘에 40일 동안 완주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해요. 1년 365일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됩니

다”라고 이현숙 집사(8교구)는 말한다. 성전을 가득 채운 성도들의 뜨거운 찬양과 기도는 새벽을 깨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은혜로운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한다. 이어지는 기도 시간에는 세계와 열방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광림교회를 위해, 가정과 개인, 일터와 환우를 위해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사명 감당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잠비아 광림미션센터 건축과 지진으로 무너진 튀르키예 안디옥개신교회 재건을 위해서, 또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을 위해서 모두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해야 할 때이다.

기도회 기간 중 매주 토요일 새벽에는 여선교회, 남선교회, 청년부, 교회학교가 특송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예정이다. 교회학교에서는 매주 토요일 ‘가족과 함께 오르는 호렘산’을 진행한다.

또 본당 로비에는 기도의 벽이 세워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적힌 기도 카드로 뽀뽀하게 채워진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호렘에 오르는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2025년 호렘산이 되길 바랍니다”라며 성도들을 호렘산으로 초청했다.

이정순 기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진 우리 가정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마 7:18)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인생’일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속한 가정의 공동체가 행복하고, 이로 인하여 나와 관계한 모든 것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인생에 관하여 말할 때 대체로 네 가지의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할 일이 있어 거기에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둘째는 바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미래지향적이며, 더 밝은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셋째는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사랑할 대상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넷째로, 믿음의 대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확실한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믿노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행복의 요인을 보면 행복은 다른 어떠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장 원시적 공동체인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공동체인 우리의 가정,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듯이 좋은 열매가 먼저인 가정이 아니라,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실한 가정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나누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께 깊게 뿌리내린 가정에 풍성한 열매가 넘쳐 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과수나무일 경우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열매를 보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다가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러 가까이 가셨으나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마 21:19)고 저주하십니다. 있어야 하는 열매가 없기에 예수님은 저주하신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을 겉으로 보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뿌리 있는 신앙인은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만약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살아갑니다. 하지만 척박한 곳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뿌리가 자랄 수 없기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깊게 뿌리내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마태복음 7:15~23

15.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16.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덩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

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그 날에 많은 사람

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되심을 고백하는 가정이 될 때에 가정 안에 구원의 감격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성공하는 것, 선한 일과 섬기는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느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이 가정 안에 있게 될 때에 부정적인 것들을 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둘째, 주의 뜻을 헤아려 행하는 가정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본문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이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하고 거룩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곧 선하고 거룩하신 뜻인데, 과연 무엇을 선하

다고 하며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선함’, 히브리어 원어로 ‘토브’입니다. 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하신 말씀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선함’은 인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는 다른 것,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으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우리 가정 안에 있게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인생의 수많은 결정의 순간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바른 결정과 더불어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것보다 성령이 우리와 우리 가

정에 임재하시기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줄 믿습니다.

셋째, 구원의 고백이 있는 가정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1절을 다시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깊게 뿌리내린 가정, 더불어 거룩한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 바로 여기에 풍성하고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러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인 찬양이 넘치는 우리와 우리 가정이 될 때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나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넌 때 감격에 찬 기쁨으로 찬송했습니다. 이 찬송이 오늘의 찬송의 효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구원받고 구속함을 받는 그 감격, 그저 입을 열어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보냅니다. 이것이 구원의 고백이자 찬송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에 주인이 될 때에 찬송이 넘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구원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뿐 아니라 그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약속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여기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인 찬송이 넘치게 됩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소망이 있기에 찬송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가정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더불어 찬송이 넘치는 가정이 될 때 풍성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정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감독회장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감독회장의 설교는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림교회 주일설교를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장천기념사업회 창립총회, 제2회 장천포럼 개최

5월 12일(월), 사회봉사관 컨벤션홀에서 열려



장천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창립총회와 제2회 장천포럼이 지난 5월 12일(월)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장천포럼에 앞서 사단법인 장천기념사업회 창립총회가 있었다. 2023년 11월 장천 김선도 감독 1주기를 맞아 발족한 장천기념사업회의 창립총회는 장천기념사업회 회장인 박동찬 목사(일산광림교회 담임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장천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최이우 목사(종교교회 원로목사)는 “지난 2년간 사업 방향을 계획하고 사단법인 설립 준비를 했다. 장천은 예수님을 따라 우리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셨다. 사업회는 그 뜻을 기리며 세 가지 일을 하려고 한다. 사람을 키우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평화통일 선교를 위해 힘쓰는 곳이 되고자 한다”라고 했다. 이어 질의 및 응답의 시간을 가졌고 장천기념사업회

창립총회를 마쳤다.

이어진 제2회 장천포럼은 1부 예배, 2부 강연 및 논찬(論贊)의 순으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황웅식 목사(신애교회 담임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광민 목사(광림동교회 담임목사)가 기도했다. 이어 장세근 장로(광림교회 중경장로회장)의 성경 봉독과 소프라노 한경성의 특송 후 김정석 감독회장의 설교가 있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김선도 감독님이 강조한 세 가지 신앙의 자세’(요 3:16)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김선도 감독님의 목회에서 가장 핵심이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았다. 감독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구속 사적 관점에서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가능성 있는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고 늘 얘기하셨다”라며, 김선도 감독님의 설교에서 유난히 강조하던 경건성, 거룩성, 선행이라는 세 가지 신앙의 자세를 본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김영현 감독(은평교회 원로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 박동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2부는 강연 및 논찬이 있었다. 장천의 신앙을 신학적으로 풀 ‘장천의 신앙적 상상력’이란 주제로 서창원 박사(감리교신학대학교 명예교수)가 강의했고, 김정두 목사(과천은파교회)와 황웅식 목사(신애교회)가 논찬에 나섰다.

장천기념사업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장천포럼을 통해 김선도 감독의 목회 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한국교회에 이바지해 나갈 계획이다.

박희윤 기자

딘 헤스(Dean Hess) 대령 10주기

‘하늘의 사랑을 전한 참된 군인이자 목회자’



딘 헤스 대령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미국 공군 조종사로 참전하여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전쟁의 포화 속에서 수백 명의 한국 고아들을 구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방치된 고아들을 위해 자신이 속한 비행단과 미 공군의 자원을 동원하여 제주도로 이송했고, 이 과정에서 약 1,000여 명의 생명이 구조되었다. 이 사건은 이후 그의 자서전과 1957년 영화 《전송가(Battle Hymn)》로 제작되어 전 세계에 알려졌다.

딘 헤스 대령의 희생적 사랑과 복음적 실천을 기리기 위해, 고(故) 김선도 감독은 딘 헤스 대령 생전 여러 차례 오하이오주 데이턴을 방문하여 직접 감사를 전한 바 있다. 또한, 그의 2주기를 맞이한 2017년에는 광림교회의 후원으로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에 공적 기념비를 세우고, 이를 역사 교육 공간으로 조성했다.

이번 10주기를 맞아 공군으로부터 특별 초청을 받은 김정석 감독회장은 추모사에서 “딘 헤스 대령은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킨 우리의

형제였으며, 목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라고 회고했다.

딘 헤스 대령은 2015년 3월 2일 미국에서 별세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지금도 한국 땅 위에 살아 숨 쉬고 있다. 대한민국 공군과 광림교회가 진행한 기념사업은 그가 보여준 복음적 사랑과 실천적 신앙의 본모기를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에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포토 뉴스



미래 교회와 양국 교회 협력 대담
5월 8일, 미국 웨슬리신학대 데이빗 맥알리스터 윌슨 총장과 김정석 감독회장은 미래 교회와 양국 교회의 협력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오병이어 본차이나 접시 판매
안디옥개신교회 재건축을 위한 오병이어 본차이나 접시를 주일에만 국외선교위원회실(본당 지하 1층)에서 판매한다.



어려운 이웃 돕기 감사장
강남구청은 광림교회가 강남 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줄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을 기증한 것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했다.

감독회장 동정



- 5/12 장천포럼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이준예배
- 5/13 트리니티성서대학원
- 5/14 수요치유의 신학
- 5/15~16 기독교대한감리회 정책세미나
- 5/20 트리니티성서대학원
- 5/21 웨슬리 교단장 회의
수요치유의 신학
- 5/22 딘 헤스 대령 10주기 추모행사
- 5/22~23 감독회의
- 5/23 교계 지도자 모임
- 5/24 월간회의
- 5/25 웨슬리회심기념주일
선교주일 / 세례예식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아버이주일 찬양으로 감사를 드리다

남성성가단, 창단 40주년 기념 음악예배



남성성가단(단장 박동호 장로)은 5월 11일 주일 저녁예배 시간 본당 대예배실에서 광림남성성가단 창단 40주년을 기념하는 아버지주일 감사 음악예배를 드렸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는 주제로 열린 음악회에서 남성성가단은 '사랑이 예 오셨네' 등 7곡의 합창을 했으며 솔리스트 5명으로 구성된 중창단이 '주 날 인도하시네'를 불렀다. 또한 조태영 권사·이덕희 권사는 하모니카 2중주로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과

'섬집아기'를 연주해 참석한 성도들을 잠시 동안 동심 속으로 빠져들게 하였다. 준비된 순서를 마친 뒤 앙코르곡을 하기 전에 남성성가단 지휘자인 박창석 집사는 성도들에게 오늘 부른 찬양곡에 대해 설명을 했다. "먼저 '사랑이 예 오셨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을 찬양한 것이며 '어머니'는 아버지주일을 맞아 늙으신 어머니에 대해 사랑한다는 고백의 찬양곡이다. '언

제나 감사'는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함을 잃지 않으려고 부른 노래이며 '용서하라'는 우리를 힘들게 한 자를 용서하라는 곡이다"라고 했다. 이어서 "마지막 스테이지는 하늘을 향해 행진하고 오늘은 행복한 날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 '오 해피데이'를 불렀다. 끝으로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I love you Lord'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고 했다.

앙코르곡으로 '예수 믿으세요'를 참석자들의 박수와 함께 부르면서 공연을 마무리했다.

광림남성성가단은 1985년에 창단되어 필리핀에서 열린 세계 로잔대회에서 찬양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 크리스탈 교회와 하와이 지역 순회연주,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 감리교 대회에 초청되어 성가를 연주하고 튀르키예 안디옥개신교회 봉헌예배에 참여하여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 또한 교도소, 군부대, 농촌지역의 미자립교회 등 소외되기 쉬운 곳에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해 왔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이날 예배를 마치면서 "미국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성가단을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광림남성성가단 또한 창단 때부터 함께 한 단원이 있는 만큼 연배는 있을지라도 중후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에 많은 은혜가 된다. 오래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첫 번째 채플에서 들었던 복음성가가 오늘 부른 'I love you Lord'였으며 그 곡을 들으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 수고한 단원들에게 모두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특섭 기자

광림 STEP 4 Living Jesus 영성세미나

5월 18일, 주일저녁예배에서 간증하며 성도들과 은혜 나눠



광림교회 평신도 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4 STEPS 상반기 교육이 5월 11일(주일) 은혜롭게 종료되었다. 이어서 제2기 STEP 4 Living Jesus 영성세미나가 5월 15일(목) ~ 17일(토) 광림세미나하우스에서 열렸다. STEP 2, 3 과정을 수료한 35명의 집사, 권사가 세미나에 참석했고 목회자들과 목회 선교지원실 스태프들이 참석자들을 섬기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참석자들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삶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간증과 기도 제목을 나누었다. 5월 18일(주일) 저녁예배에서는 영성세미나에 참가했던 1, 2기 수료생이 한자리에 모였

고, 대표로 2명의 간증자가 나와 세미나에서 받은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다.

작년에 1기를 수료한 이민자 권사(23교구)는 "영성세미나를 떠올리니 감동의 마음이 벅차옵니다. 세족식에서 한 권사님께서 제 발을 씻어주시는데 제 죄가 씻겨 내려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고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군데군데 금이 가고 깨어진 질그릇 같은 저를 다듬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필요한 것을 달라는 기도가 바뀌어 '주님 저

를 다듬어주세요. 주님 기뻐하는 그릇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왔고 남편과 자녀를 대하는 제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따뜻해졌습니다"라고 고백했다.

2기 수료자 한정임 집사(21교구)는 "영성세미나는 제게 맞춤형 은혜 한마당이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믿음이었던 제게 인생의 큰 폭풍이 다가왔고 억울한 마음에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에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침묵은 오히려 하나님의 적극적인 반응인 것을 깨닫고 내가 질그릇처럼 깨어질게 많은 존

재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 자유함을 얻었고 저를 위해 기도해 준 공동체의 기도와 응원에 감사했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내가 다르듯 내일의 나도 더욱 새롭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영성세미나에서 받은 은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라고 말했다.

1, 2기 수료생들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무리했다.

소현수 기자



이민자 권사

한정임 집사

청년부

예수님의 제자 됨을 배우는 시간

JDC 5기 & 디베라 MT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8주간의 여정
광림교회 LFC 청년부는 3월 22일 ~5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JDC(Jesus Discipleship Camp) 5기 교육을 진행하였다.

JDC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삶의 훈련이다. 청년들은 8주 동안 매일 <온타임> 말씀

묵상과 20분 기도, 영성 서적 읽기, 성구 암송 등 거룩한 습관을 삶 속에 자리 잡도록 실천하였다. 또한 매주 찬양, 묵상 나눔, 강의, 기도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순서를 통해 말씀 위에 세워지는 신앙의 기초를 다졌으며, 12가지 주제의 교리를 배우며 복음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넓혀갔다.

삶의 자리에서 제자 됨을 결단한 시간 - 디베라 MT

JDC 마지막 주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디베라 MT가 강화도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캠프는 지금까지의 훈련을 실제 삶으로 연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다.

첫날 오후, 청년들은 웨이커 퀘스천(QQ) 시간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순간과 가장 따뜻했던 기억',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 '나의 비전과 기도 제목'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열고 깊이 공감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세족식과 성찬식,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장면을 되새기며, 발을 씻는 세족식을 가졌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많은 이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였다.

이어진 성찬식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였다.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 앞에 참여한 청년들의 마음이 열렸고, 제자 됨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삶, 이제 시작

수료증 수여와 소감 나눔으로 마무리된 JDC 5기는 각자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남겼다.

이번 기수 총무를 맡은 김영환 형제는 "JDC 5기를 통해 '예수님 중심'의 삶을 결단하게 되었고, 동기들과 나눈 은혜와 기도가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디베라 MT는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었으며, 세족식과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나도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훈련은 끝이 났지만, 제자의 삶은 이제 시작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한 이들의 앞길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있다.

황시언 전도사(청년부)

청장년부

말씀을 통해 세워가는 부부와 가정

‘결혼을 말하다’ 5월 11일(주일)부터 10주간 진행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청장년부(위원장 신범식 장로)에서는 기혼 지체들을 대상으로 '결혼을 말하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 청장년 싱글 공동체에서도 실시한 이 프로그램은 '성경적 결혼관을 통해 배우는 관계'라는 부제를 가지고 결혼생활, 부부관계, 자녀 양육에 관하여 10주간 진행된다.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혼인에 대한 통계가 1995년 43만 건을 정점으로 1996년부터는 혼인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미혼의 증가와 그로 인한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청장년부는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신앙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이 강의를 신설하게 되었다.

주 교재인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는 실제로 팀 켈러 목사 부부가 부임했던 목회의 토대로 지어진 책이다. 팀 켈러牧사는 4,000명의 교인 중 3,000명의 교인이 미혼인 교회에서의 목회를 바탕으로 성경에 기초한 삶을 핵심적 원리를 가르치고자 이 책을 저술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 강사인 신범식 장로는 "이번 교육을 통해서 우리 청장년 지체들이 성경에 근거하여 결혼을 바라보아야 하며, 한 강의 한 강의 진행될 때마다 그 놀랍고 은

밀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하는 정수현 집사는 "이번 강의에 참석하며 성경 안에서 배우는 결혼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청장2부 모든 가정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에게 더 많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강아름 성도는 "신혼 속회라서 이제 막 아기가 태어나 양육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생각하는 것보단 어린 자녀에 집중되는 상황일 수 밖에 없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서 남편, 아내 서로를 좀 더 생각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결혼을 말하다'를 통해서 광림교회 청장년부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발견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열매를 맺어가길 기도하고 있다.

한준구 전도사(청장년부)

팀 켈러
Timothy Keller

성경적 결혼관을 통해 배우는 관계

Part 1- 결혼은 무엇인가

2주 결혼에 대한 오묘한 시각을 배우고

3주 성경의 의무성으로 자기 중심성 깨닫기

Part 2 결혼은 성전이다

4주 사랑을 깨닫기(결혼은 동거적인 친밀이다)

5주 하나님께 헌신 안에서 한 몸 되는 것이다

6주 사랑의 Time

7주 진정한 사랑은 그대방에 시작이다

8주 대방의 복을 누리라

9주 3 결혼을 깨닫는다

9주 하나님과 하나님께는 사랑은 이루어진다

10주 인생들의 결혼의 면면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프로그램 소개

성경적 결혼관을 학습함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결혼을 통해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피고, 건강한 사회적 성원으로 살아갈 지혜를 얻는 유익한 시간입니다.

일시 : 5월 11일(주일) ~ 8월 10일(주일) 10주 과정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 8층

목회현장

봄꽃을 나눕니다



강촌광림교회에서는 광림노인전문요양원 점심시간에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와 호렙산기도회를 드립니다. 강원도의 꽃샘추위와 봄빛 사이로 식사를 마치고,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를 드리러 직원들이 팀별로 교회에 발걸음 합니다. 어르신들은 많이 연로해지셔서 교회로 걸어오실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기도회를 준비하며, 교회 강단 십자가의 빛을 밝히고, 따뜻한 온풍을 켭니다. 아름다운 피아노 찬송이 흐르고, 갓 내린 커피향과 간단한 다과도 준비합니다. 직원 중에는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며, 교대로 식사하는 잠깐의 틈을 내어 교회로 오신 발걸음이 오감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마주하길 기도하며 준비를 서두릅니다. 사순절 기도회의 스티커가 붙어 질수록 봄의 생명력으로 채워지는 오솔길에서 새싹과 꽃을 마주하며 기쁨 얻으시길,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서툰 직원들을 위해 '손글씨로 쓰는 손자녀를 위한 축복기도문'을 두었더니 말씀과 기도를 따라 쓰며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잠언과 전도서도 함께 손글씨로 옮겨 보았습니다.

24시간 교대 근무상 개인별로 매일 참여할 수

없으나, 팀별로 채워지는 스티커 묵상 그림을 통해서도 이야깃거리가 생깁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함께 기도제목도 나누게 됩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교회에서 직원 속회를 드립니다. 성금요일에는 봄꽃 모종을 강단에 두고, 직접 가져가시도록 안내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추위를 이긴 봄꽃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전합니다. 봄꽃 소식에 그동안 교회에서 보기 어려웠던 얼굴들도 한 번씩 보게 됩니다. 봄꽃을 가져가는 직원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가득합니다. 봄꽃을 든 모습에 어르신들은 가까이에서 보자고, 향기 맡아보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은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부활절 예배를 알리는 라벨을 붙인 종이 그릇에 담은 모종들이 모이니 꽃의 모양과 색, 향이 어우러져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움이

교회에 가득합니다. 봄꽃 모종들은 흙을 더 채워 뿌리를 단단하게 해줘야 합니다. 바람도 통하는 자리에 두어야 오래 두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들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생명을 향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겨울철 황량했던 교회 주변 산속나무들이 푸르러집니다. 올 봄꽃들은 꽃샘추위 중에도 매서운 눈과 비바람을 이기고, 찬란히 꽃을 피웠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예배 중에 창밖을 보며 어르신들과 잘했다 칭찬하자 말씀 나누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 사랑으로 아름다워지자고 은혜를 나눕니다.

봄꽃 모종들도 각 가정으로 전해져 아름다운 이야기가 더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해지고, 더 향기롭고, 새롭게 피어나길 기도합니다.

전선옥 목사(강촌광림교회)

광림남교회

플리마켓, 몽골을 꿈꾸다



남교회 청장년부 주관으로 준비한 플리마켓은 단순한 물품 판매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눔과 섬김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 행사의 수익금이 몽골 선교를 위한 후원금으로 보내기에 더욱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아이들과 함께 판매 물품을 고르는 시간이 참 의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점은 어린 자녀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이 아끼던 책이나 장난감을 정성스럽게 포장하여 직접 설명하며 판매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용돈으로 재료를 사서 음료나 쿠키, 비즈, 헤어핀, 슬라임 등을 직접 만들어 팔기도 했습니다.

플리마켓을 위한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가정에서 아이들과 기도로 준비할 수 있음도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과 몽골 선교 영상을 찾아보며 몽골의 문화와 배경 등을 배우고, 우리가 헌금하면 몽골교회에 빨간 벽돌 한 장을 올릴 수 있고, 또 이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려주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플리마켓 당일, 교회는 밝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 다양한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가격표 하나하나에도 가족의 정성과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손님을 향해 “이거

는 제가 좋아하던 책이에요,” “이 장난감은 멀쩡해요, 재미있어요!” 하고 말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또한 이번 플리마켓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협력하고 소통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예배 후 봉사하러 가기 전에 헬레벌떡 뛰어오셔서 헌금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물건값보다 더 받으라며 남은 잔돈을 쓰옥 아이에게 내미시는 모습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성도들과 반갑게 서로의 근황을 묻고, 함께 기뻐하는 시간 속에서 따뜻한 가족 같은 분위기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건을 사고파는 것 이상의 풍성한 교제가 있었고, 작은 손길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일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판매하고 남은 물품은 몽골선교지로 보내기로 하고, 마지막은 아이들이 직접 판 돈을 헌금함에 헌금하고 목사님께서 기도로 축복해 주며 그 시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몽골에 직접 가지는 못했어도 우리의 작은 헌신과 물질이 먼 타국의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벌써 저희 아이들은 다음 플리마켓이 언제냐고 또 다른 아이들을 고민합니다.

윤은희 집사(광림남교회 청장년부)

예배위원회

이슬비 속 회복의 산책



1953년 광림교회의 창립과 함께 시작된 예배위원회(위원장 김두원 장로)는 지금도 변함없이 광림교회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성도들이 경건하고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성도 맞이, 주보 배포, 예배당 안내, 응급상황 대처 등 예배 전반에 걸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의 손과 발로 사용해 주심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위원회는 봄을 맞아 지난 5월 9일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순천과 여수, 담양을 잇는 춘계 영성수련회 길에 올랐습니다. 장로님의 출발 기도를 시작으로 약 5시간 반의 이동 끝에 순천에 도착하며 본격적인 은혜의 여정이 열렸습니다.

첫 방문지는 순천 국가정원. 나라별 정원에서 초록의 숨결을 두 발로 밟고 느끼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깊이 체험하였습니다. 비와 바람이 동행한 흐린 날씨였지만, 오히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더욱 깊고 담백한 임재의 시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어 순천만 갈대습지 산책까지 마친 뒤 여수로 향해, 풍성한 저녁 애찬을 나누고, 여수 밤바다의 낭만을 케이블카 위에서 감상하는 것으로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숙소는 여수시가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조성한 한옥호텔 ‘오동재’로, 전통과 현대적 편

의 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슬비가 고요히 내리는 한옥 처마 아래에서 드린 묵상은 단순한 쉼을 넘어 하나님의 숨결에 귀를 기울이는 영적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담양 죽녹원에 들러 대나무 숲길을 걸으며 각자의 내면을 정리하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가 내려 더욱 운치 있던 그 숲길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듯한 신비로운 체험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또한 예상보다 훨씬 순조로워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비 내리는 여행이 아쉬움으로 보였겠지만, 우리에게 그 비마저 은혜의 장막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여행은 세상과 나 사이의 문을 여는 행위”라면,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예배위원 각자의 심령은 더욱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는 은혜를 입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성곤 권사(예배위원회)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선교의 역사 ③

1885년, 인천 제물포에 상륙한 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의료선교사인 호러스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교육선교사인 헨리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교육선교에 공을 들였습니다. 복음은 단지 교회 안의 설교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학교를 품었고, 교실에서 아이들과 소통하며, 교재를 통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기독교의 교육선교는 배재학당(1885년)의 설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경신학교가 세워졌고, 정동에 여성교육의 시초인 이화학당이 세워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구식 학교의 등장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문을 두드린 새로운 교육은 작

은 교실을 통해 인간 존엄, 평등, 지성의 빛,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소망을 나누었습니다. 아펜젤러는 단지 영어와 수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가르쳤고, 스코틀랜드 대부인은 이화학당을 통해 여성 교육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조선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파격적인 진보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기독교 교육선교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저항의 교육이 되었고, 동시에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복음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 시기였습니다. 배재, 이화, 연세, 정신여학교 등 기독교계 학교들은 단지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

음을 받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가르치는 성소였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서 자라났으며 그들은 기독교인임과 동시에 민족을 사랑한 자들이었습니다. 교육은 믿음의 날개였고, 복음은 민족 사랑의 불꽃이었던 것입니다.

광복 이후, 그리고 6·25전쟁이라는 참혹한 시기를 지나며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재건과 회복의 불씨를 교육에서 찾았습니다. 교회학교는 민족의 미래를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교회이자 학교'였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교회들은 지역마다 교회학교를 세우고,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양육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기독교 교육선교는 새로운 도전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속화, 저출산, 디지털화는 전통적 교회교육에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기독교의 교육선교는 그 시작부터 지성과 신앙의 통합, 사랑과 정의의 실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다시 '교육'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의 미래를 고민하고, 일구어가야 할 때입니다.

✚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배재학당 동관



이화학당

한결같은 찬양 40년, 믿음의 힘찬 하모니는 계속된다!

남성성가단 - 박동호 장로



광림교회 예배의 든든한 후방을 40년간 지켜온 남성성가단. 그 중심에는 늘 낮은 자세로 단원들을 섬기며 찬양을 기도로 드려온 박동호 장로가 있다. 1999년 단원으로 입단해 현재는 단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박동호 장로에게 남성성가단의 시작과 걸어온 길, 그리고 찬양 사역의 은혜에 대해 들어보았다.

남성성가단과의 첫 만남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7년 넘게 미등록 교인으로 지내다가 1997년, 광림교회 신년 금식성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이후 가브리엘성가대에서 봉사하던 중, 주변의 권유로 남성성가단에 입단하게 되었는데 그 선택이 제 신앙의 방향을 바꾼 전환점이었습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깊

이 교제하게 되었고, 단원들과 함께하며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남성성가단원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보다 특별했던 기억은 2000년 6월 29일, 안디옥개신교회 봉헌예배 찬양입니다. 고(故) 김선도 감독님과 함께 베드로 동굴 교회에서 성만찬 예식을 드렸는데, 그때 느꼈던 감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또 2016년 필리핀 클라크로 떠난 찬양 선교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곳 아이들의 해맑은 눈망울과 함께 나눴던 식사, 따뜻한 마음들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교향 정선의 임계감리 교회에서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열었던 것도 특별했습니다. 어릴 적 다니던 교향 교회에서 찬양하는데, 감회가 새로웠고 그걸 지켜보는 어머니도 참 뿌듯해하셨죠.

남성성가단의 사역이 교회 안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성가단은 예배의 후방을 든든히 지키는 존재로 우리가 기도로 드리는 찬양이 성전에 울려 퍼질 때, 온 교인이 은혜를 받습니다. 특히 남성성가단의 하모니는 우렁찬 울림으로 성전의 분위기를 변화시킵니다. 예배 속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이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성가단원으로 느끼는 보람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저는 처음 단원이 되었을 때도 막내였고, 지금도 여전히 막내 축에 속합니다. 단원들의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면서, 세대교체는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낮은 자세로 단원들을 섬기며 함께하려 노력합니다.

남성성가단은 매주 주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성가대실에서 연습을 합니다. 누구나 찬양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로 은혜의 자리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봉사하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찬양을 향한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찬양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기에, 그 마음들이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앞으로 남성성가단이 나아갈 방향이나 바람은?

남성성가단은 올해로 40주년을 맞아 부흥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한동안 위축되었던 농어촌 교회 찬양 선교도 올 여름 계획 중이며, 2005년 시작되어 2015년 제4회를 끝으로 멈췄던 '한국(국제) 기독교남성가제'가 부활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안디옥개신교회가 재건되면 다시 그곳에서 찬양드리고 싶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세대가 어우러져 찬양하고 그 흐름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진정한 사역의 지속이 가능하다고 믿기에, 30·40·50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70명의 단원이 가득 찬 성가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날을 소망하며,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혜선 기자





한눈에 명화로 보는 구약성경 이야기

12



▲ 이삭에게 축복받는 야곱_야곱이 눈이 보이지 않는 이삭에게 에서 대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내는 장면이다. 호페르트 플링크 작품

축복받은 야곱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창 27:27-29)

아버지 이삭의 명으로 에서는 활과 화살을 들고 집을 나섰다. 그 때 이 이야기를 엿들은 리브가가 곧바로 야곱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때가 됐다. 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에서에게 축복을 내리려고 하신다. 오늘 주무시기 전에 말아야. 내가 너를 변장시켜서 아버지가 에서라고 여기게 해줄게. 그러면 아버지가 모든 축복을 너에게 주실 거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던 바가 아니냐?”
그러나 야곱은 썩 내키지 않았다.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무리 눈이 어두운 아버지라지만 저를 만져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리브가는 야곱에게 강경하게 말했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며.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어서 가서 염소 두 마리를 끌고 오너라.”

야곱은 염소 두 마리를 붙잡아서 어머니에게 끌고 왔고, 리브가는 에서가 만드는 방법으로 염소 고기를 이삭의 입맛에 맞게 요리했다. 그런 다음에 그녀는 자기가 집에 잠간직하여 둔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야곱에게 입혔다. 그리고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덜미에 둘러 주고 나서 염소 고기와 빵을 야곱에게 들려주었다.

광림 뉴스레터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문의: 빛의 숲 서점(02-2056-5771)

